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어린이 합창團 實態調查와  
指導方法 研究

濟州大學校教育大學院

音樂教育專攻

金 姬 子

2010年 08月

# 어린이 합창團 實態調查와 指導方法 研究

指導教授 李 椿 起

金 姬 子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08月

金 姬 子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準함

審査委員長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0年 08月

# 목 차

표 목 차	iii
국문초록	v
<b>I. 서론</b>	
1.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2
3. 범위와 방법	4
<b>II. 이론적 배경</b>	
1. 어린이 합창교육	
가. 합창의 중요성	5
나. 합창의 적합한 연령	6
다. 목소리의 특성	7
2. 두성 발성의 논란	8
3. 연습과 연주를 위한 선곡 과정에서 음악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	9
4. 지도력을 갖는 지휘자의 자세	10
<b>III. 연구의 절차 및 방법</b>	
1. 문제의 설정	11
2. 도구	11
3. 대상	12
4. 자료 수집 및 처리	12
<b>IV. 제주도내 사설 어린이 합창단의 실태조사 분석과 효과적인 지도방법 연구</b>	
1. 지휘자의 지도 실태	13
2. 단원의 실태	24

3. 분석 결과.....	29
4. 실태 분석에 바탕한 효과적인 지도방법.....	32
가. 합창 연습 준비 단계.....	32
나. 합창 연습의 단계 및 과정.....	33
1) 발성전의 워밍업.....	33
2) 합창소리 만들기.....	34
3) 노래 지도의 실제.....	36
 V. 결    론.....	 37
 참고문헌.....	 40
ABSTRACT.....	42
부    록	
1. 설문지(지휘자용) .....	44
2. 설문지(학생용) .....	50

## 표 목 차

<표 1> 지휘자의 성별 실태.....	13
<표 2> 지휘자의 연령 구성의 실태.....	13
<표 3> 지휘자의 전공 실태.....	14
<표 4> 지휘자의 지도 경력 실태.....	14
<표 5> 지휘자의 전문적인 연수 경험 실태.....	14
<표 6> 단원 오디션 유무.....	15
<표 7> 합창단 시작 연령의 실태.....	15
<표 8> 단원 편성 실태.....	16
<표 9> 단원들의 남녀 비율(10명을 기준으로) 실태.....	16
<표 10> 파트 편성의 균형 실태.....	16
<표 11> 전용연습실의 유무 실태.....	17
<표 12> 연습 횟수 실태.....	17
<표 13> 한 주간의 총연습 시간 실태.....	17
<표 14> 정기발표회 주기 실태.....	18
<표 15> 합창단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 개설 유무 실태.....	18
<표 16> 합창단 운영의 어려운 점 실태.....	18
<표 17> 합창 지도에서의 문제점 실태.....	19
<표 18> 발성법 지도 실태.....	19
<표 19> 단원들의 발성 이해도 실태.....	20
<표 20> 합창 연주시의 가사 전달 여부 실태.....	21
<표 21> 가사 발음 지도 실태.....	21
<표 22> 효과적인 가사 전달을 위한 발음 지도방법 실태.....	21
<표 23> 표현 지도 시 가장 중요한 실태.....	22
<표 24> 악곡 선정과 음악적 표현 실태.....	22

<표 25> 반주자 지시 실태.....	23
<표 26> 악구 표현에 대한 지도 실태.....	23
<표 27> 곡의 분위기를 이해 실태.....	23
<표 28> 단원들의 음악적 표현 실태.....	24
<표 29> 효과적인 악곡의 표현 방법 실태.....	24
<표 30> 단원들의 성별 실태.....	24
<표 31> 입단 계기 실태.....	25
<표 32> 단원의 경력 실태.....	25
<표 33> 화음 인지 여부 실태.....	25
<표 34> 청음 연습 여부 실태.....	26
<표 35> 변성기 인지 여부 실태.....	26
<표 36> 조성 인지 여부 실태.....	26
<표 37> 악상 기호 인지 여부 실태.....	27
<표 38> 악기 연주 유무 실태.....	27
<표 39> 노래할 때 순서 여부 실태.....	27
<표 40> 발성 연습 소요 시간 실태.....	28
<표 41> 호흡법 인지 여부.....	28
<표 42> 합창을 하면 마음이 밝아지는가 여부 실태.....	28
<표 43> 합창을 하면 하나가 되는지 여부 실태.....	29
<표 44> 합창단 카페나 홈페이지 활용 유무 실태.....	29

<국문초록>

## 어린이 합창단의 실태조사와 지도방법 연구

김 희 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지도교수 이 춘 기

어린이들에게 합창 음악을 가르친다는 것은 창조물로 하여금 생명력을 불어넣는 신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합창은 다수가 모여, 높낮이를 하나로 모아 공통체 의식을 가지게 하며 아름답게 만들어내므로 어린이들에게는 그들의 성장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주어 소중한 경험을 얻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도 내의 사설 어린이 합창단의 지도자에 관한 지도 실태를 바탕으로 합창단원들로 하여금 어린이 합창 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합창활동에 어떠한 태도로 임하는지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어린이 합창 교육의 효과적인 지도방법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실태조사는 제주도 내에서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9개의 어린이 합창단을 대상으로 하여 제주도 내 사설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 지도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지휘자의 지도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음악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지도 경력이 많은 관계로 무난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문제점으로는 합창단을 구성하는 데에 대한 단원 선발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들 수 있다. 어린이들의 합창단 활동에 적합한 연령은 가장 발달된 소리를 낼



수 있는 5, 6학년인데 어린이들이 고학년이 되면 교과 학습 활동과 관련하여 학원에 다니느라 합창단활동에는 많이 제한적이며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단원모집을 위하여는 부득이 저학년인 1, 2학년부터 모집하여 편성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원 편성수요는 부족하여 정기 오디션을 통하여 선발하지 못하고 일단 편법으로 충원운영 되다보니 일부 합창단인 경우 음정이 불안하거나 음악적 이해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적당히 넘겨야하는 문제에 부딪혀 지휘자가 지도 및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어려움이 뒤따르며 아울러 합창단은 수준이 저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발성 지도의 실태면에서도 많은 지휘자들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학년 어린이들이 많이 입단한 합창단과 아이들의 맑은소리를 선호하는 합창단의 경우는 진성만으로 합창을 지도하고 있었고, 소리의 통일과 음역이 높은 다양한 곡을 선택하기 위해서 두성을 가르치는 합창단도 있었다. 합창단에 따라서 저음에는 진성, 고음에는 두성을 쓰는 지휘자도 많았다. 이처럼 어린이 합창의 두성과 진성의 발성법에 필요한 적절한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다.

4. 어린이 합창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려는 것보다는 합창 음악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서론

## 1. 필요성 및 목적

음악은 그 어떤 예술보다도 인간의 마음 속 깊이 깃들어 있는 섬세하고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음악은 음악 활동을 통하여 자기표현의 기회를 갖게 하며, 표현 감각을 발달시켜 주고, 풍부한 정서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하여 자기표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줌은 물론, 원만한 정서와 인격을 갖춘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합창은 인간의 협동을 통한 음색의 통일에 따른 음악적인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예술적인 감동을 일으켜 자신의 감정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가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말하자면 합창을 통해 인간은 음악적 지식이나 감정의 표현이 풍부해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들과 힘을 합하여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과 같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공동체의식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 그러나 합창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질적으로 바람직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사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가를 연구하여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합창 교육에서 교사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교사는 어린이들이 관심을 살피고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어린이 합창에 대한 발성이나 호흡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연습계획과 효율적인 방법도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자신이 맡고 있는 합창단의 합창 지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 개선함으로써 더욱 실력 있는 합창단이 되도록 하여야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도내 사설어린이 합창단을 중심으로 어떻게 합창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어린이 합창 지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 2. 선행 연구 검토

본 논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선행 논문 및 연구물을 고찰하여 주제 설정 및 방향을 모색하고 지도 방안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얻었다. 또한 설문문을 통하여 얻어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백금영(2000)은 가사의 발음에 대한 연구로, 한국어의 정확한 가사를, 노래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발음 표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sup>1)</sup>

신성혜(2003)는 합창을 성공적으로 연주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곡의 선택이며, 특히 어린이합창에서 곡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좋은 합창곡이 선택되지 않으면 연습에서나 연주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없고 곡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지휘자의 기량이나 능력, 합창단의 수준이 낮은 데서 오는 문제보다 더 크다고 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연습이 있어야 하는데, 결국 이 두 가지가 성공적인 연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라 보고 있다.<sup>2)</sup>

한승환(2005)은 현장에서 지도하는 합창 지도 교사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배우는 어린이들에게는 수준 높은 합창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004년 서울시 밝고 맑은 노래 부르기 합창대회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 총 80명과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생 등 합창 활동을 하는 학생 250명과 합창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의 합창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sup>3)</sup>

첫째, 합창지도교사를 양성하고, 둘째, 합창지도 여건을 개선하며, 셋째, 교육정책의 방향을 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넷째, 인터넷을 활용한 홈페이지, 카페 등을 도입 활용하고, 다섯째, 어린이 합창이 지역 사회의 어린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 백금영(2000), “합창지도에 있어서 발음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碩士學位論文, pp. 32-41.

2) 신성혜(2003), “어린이 합창곡의 기준과 리허설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碩士學位論文, pp. 30-52.

3) 한승환(2005), “초등합창 교육 실태 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碩士學位論文, pp. 13-23.

김미경(2005)은 일반적인 합창 지도에서는 음악적인 것을 먼저 다루지만 어린이 합창단의 경우는 지도자의 리더쉽과 인품을 꼽고 있다.

사실 음악은 지휘자의 역량에 따라 전혀 다른 음악이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싫어하게 될 지 좋아하게 될 지를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시창, 청음, 발성, 호흡에 대해서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합창단이 아니기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어린이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 놓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sup>4)</sup>

이와 같은 견해는 음악을 소질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으며 똑같은 감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슷하게나마 같은 기쁨과 슬픔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음악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라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박은정(1998)은 여러 해 동안 어린이 합창단 지도 경험으로, 신입 합창 단원 지도를 위한 단계적 지도안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신입 합창 단원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신입 어린이 합창단원의 실제 지도에서 1998년 경주 YWCA 어린이 합창단의 신입 단원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주 2회로 지도하였다. 테스트 과정 중 음정에 있어서 2도와 3도 음정을 저음역과 고음역으로 나누어 테스트를 한 결과, 저 음역 에서는 전원이 무난하게 정확한 음정을 낼 수 있었으나, 고음역에서는 호흡의 정확한 뒷받침이 어우러지지 않는 7명의 단원들이 잘되지 않았다. 도약음정에서는 2~6도까지는 2명의 단원이 7~8도 까지는 9명의 단원이 잘 되지 않았다.<sup>5)</sup>

이 결과는 음정에 있어서는 자신이 노래하는 음정을 듣고 느낄 수 있도록 가능하면 느린 속도에서 충분한 음정 감 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기본적으로 자세와 호흡이 바를 경우에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만큼 다시 한 번 자세와 호흡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를 테스트한 결과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지도하여야 되는가를 알 수

4) 김미경(2005),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 지도법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碩士學位論文, p. 7.

5) 박은정(1998),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위한 지도방안”.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碩士學位論文, pp. 28-46.

있게 하고, 합창 지도에 있어서 테스트를 하여 신입 단원의 능력을 파악한 후 어린이 합창단을 지도할 때 필요 없는 곳에 힘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됨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통한 합창단의 운영과 지도방법, 선곡, 부모의 권유에 의한 입단 등 합창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였으나 합창 지도에 관한 실태 조사는 아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창단 활동에 있어서 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발성 지도와 가사 전달 지도 그리고 연주시 음악적 표현에 대한 합창 지도에 관한 실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3.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제주도 내 사설 어린이 합창단을 중심으로 어린이 합창 교육 현장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좀 더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어린이 합창단의 범위는 제주도 내에 있는 총 12개 합창단 중 설문회수 된 9개 합창단의 지휘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합창에 대한 실태를 조사 하고, 어린이 합창단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그 실태를 조사 분석하려고 한다.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제시되어온 합창 지도의 효율적인 방법과 어린이 합창에 대한 국내·외의 문헌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단답형 설문조사 방식을 이용하고 현행 도내 어린이 합창단에서 실시되는 합창 교육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정리하려 한다. 또한 비교 분석 하였을 때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해마다 합창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에는 차이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연구의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시도하여왔던 지도방법과 연구하여 온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참조하였으며, 지휘자들의 면접 설문 조사를 통하여 현재 제주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설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 지도에 관한 실태파악과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 되었는바 제주지역뿐 만이 아니라 전국의 어린이 합창 지도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어린이 합창 교육

#### 가. 합창의 중요성

합창은 독창에 대응하는 말로서, 몇 개의 다른 성격을 가진 성부들이 모여 통일되고 질서에 따라 생겨나는 소리의 울림, 즉 목소리의 앙상블이라고 할 수 있다. 합창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개성이나 기술만을 고집한다면 바람직한 합창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합창이란 여러 사람의 소리가 합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모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남의천은 “합창의 본질은 주체와 주체의 인격적이고 상호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sup>6)</sup>라고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지휘자와 합창 단원의 만남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합창단과 청중 사이의 만남이다. 그러므로 합창단은 보다 아름답게 노래하고, 청중은 보다 아름다운 합창을 들으려 한다. 모두가 아름다운 음악에 최대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비록 어린이라 해도 그들의 음악에는 개성과 창작 의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김미경은 “말과 글로써 표현이 끝났을 때에는 노래를 불러라.”<sup>7)</sup> 라는 말이 있듯이 합창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표현에 대한 욕망을 마음껏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는 한 인간으로서의 원만한 정서와 인격을 갖추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서준수는 “합창은 본질적으로 음악적 사고와 표현력을 기르기 위한 기초적인 활동으로서 다른 어느 활동보다도 생활 속의 조화미를 느끼게 하는 교육이다.”<sup>8)</sup>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합창은 학생들의 긴장된 생활에 활기를 주고 음식의 통

6) 남의천(1989), 「합창 다함께 부르기」. 서울: 행림출판사. p. 21.

7) 김미경(1985), “합창 교육의 실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碩士學位論文, p. 10.

8) 서준수(1976), 「새로운 음악」, 서울: 일진출판사. p. 105.

일, 생활음악적인 질서와 미를 창조해 내기 때문이다.

음악은 집단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협동심도 기를 수 있다. 이처럼 합창은 개인 하나하나의 개성적인 표현이 아니고 단체의 일원으로서 협동하는 것이므로 다른 어느 교육보다 조화롭고 짜임새 있는 생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 교육에서도 합창 음악은 서로 협동하여 조화로운 화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 품성 교육과 인격 교육에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한다. 합창을 통하여 음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연주회나 발표회를 갖음으로써 연주 경험을 쌓아 나아가서 사회성과 협동심, 심미성, 창조성까지 개발하여 정서가 순화되어 조화로운 인격이 형성된다고 본다. 그리고 합창은 함께한다는 것, 혼자 하는 행위의 어색함과 부족한 부분을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신감이야말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장 필요하며 중요하다고 본다.<sup>9)</sup>

한 나라의 장래는 바람직한 어린이 교육에 있다고 한다면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전인 교육 차원에서 음악 교육은 더욱 절실하고 어린이 합창 음악은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야 할 특별활동이라고 생각된다.

#### 나. 합창에 적합한 연령

아이들은 모방을 통하여 언어를 배우듯이, 노래 또한 모방을 통하여 배운다. 모방의 단계를 거쳐 큰 어려움 없이 노래지도를 받은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거치면서 조금씩 음역도 넓어져서 가온다 '도'에서 위로 한 옥타브 조금 넓게 소리 낼 수 있게 되며 점점 정확한 음정으로 노래하게 된다. 3학년이 되면 조성 감을 느끼고 훈련에 따라 화음을 맞추어 노래할 수 있는 어린이가 많아진다. 4학년이 되면 가온다 '도'에서 한 옥타브 완전 4도 위까지 소리 낼 수 있을 만큼 음역이 넓어지며 훈련만 잘하면 두성발성으로 노래해도 부족함 없는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연주를 위한 합창 단원으로서의 시작은 4학년 때부터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5, 6학년은 가장 발달된 단계의 어린이 소리를 보여주며 이 시기에 두성 발성

---

9)남의천(1989), 전개서, p. 19.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어린이의 경우 변성기인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그 소리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므로 훈련이 잘 되어 어린이 소리를 잘 보존하고 있는 이 시기의 어린이들 합창단 활동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합창단의 좋은 리더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합창단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sup>10)</sup>

#### 다. 목소리의 특징

어린이의 신체 구조는 어른과 다르지 않다. 다만 어른에 비하여 어린이의 신체가 조금 미성숙하여 작은 것이지 다른 구조는 없다. 그러므로 어린이 발성 역시 성인 발성과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sup>11)</sup> 하지만 어린이의 성대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지도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성대의 부담이 커져 피로가 빨리 오기 쉽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음질 즉, 가볍고 부드러우면서도 고운 소리가 나오도록 지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sup>12)</sup> 또한 어린이의 목소리는 소프라노와 동질의 것이며 그리고 저음에서 고음에 이르기까지 맑고 가늘고 부드러우며 아름다워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은 소리가 훌륭하게 되기 전까지는 너무 큰 소리로 부르지는 않는 것이 좋다. 무리하게 큰 소리를 요구하게 되면 소리의 질과 아름다움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어린이 초기 발성 단계에서는 두성으로 발성하는 것이 좋다. 두성을 사용하면 흉성에 비해 고음역에서 정확한 음정을 구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흉성 발성이 필요 없다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흉성 발성은 저음역의 소리를 부드럽게 안정되게 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린이 음역에 따라 흉성과 두성을 적절히 혼용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5, 6학년의 어린이는 가장 발달된 단계의 어린이 소리를 보여주는 때이다. 이 시기에 발성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어린이는 변성기 때에도 그 소리를 유지할 수 있다.

10) 이동훈(1997), 「합창지도법」. 서울: 동진출판사, p. 203.

11) 문영일(1984), 「발성과 공명」. 서울: 청우도서출판, p. 156.

12) 장신의(1973), 「소녀소녀합창지도법」. 서울: 정음출판사, p. 20.



## 2. 두성 발성의 논란

어린이 합창에서 흉성 발성이 좋은가 두성 발성이 좋은가에 논란이 많지만 저음과 고음의 음색을 동일하게 연주해야 하는 합창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논란의 여지는 없어질 것이다.

어린이들은 대개 말할 때의 소리와 노래할 때의 소리를 구분하지 않고 말할 때의 소리로 노래한다. 물론, 성인도 마찬가지다. 보통 대중음악과 민속음악은 말하는 소리에 가까운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소리를 자연스럽게 여기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흉성은 각 개인의 음색이 두드러져 성부간의 음색 통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화음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는 발성법이 있다면 바로 스위스의 요들이다. 스위스 요들은 흉성과 두성을 그대로 살려, 즉 흉성과 두성을 음높이에 따라 교차시켜서 내는 창법으로 그 자체의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으나 고전음악에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두성 발성은<sup>13)</sup> 그레고리안 성가시대, 즉 중세 이후 독일, 영국, 프랑스, 비엔나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1천여 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얻어진 고운 발성법으로 어린이 합창의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 발성은 저음에서 고음까지의 음색이 고르게 통일되어 있어 개인 간, 성부간의 음색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어린이 특유의 매우 아름다운 합창을 만들 수 있다. 흉성으로 노래하든지 두성으로 노래하든지 그것은 지휘자의 기호와 결정에 달려 있다.

어린이 소리에서 흉성 발성은 성대에 힘을 주어야 하고 오래 노래하고 싶어도 짧은 시간만 할 수 밖에 없는 제한이 따른다. 특히, 변성기의 어린이에게는 긴 시간을 생소리로 노래하게 한다면 성대 근육에 무리가 오게 되어 성대 파열로 인한 쉼 목소리가 될 수 있으며 각자의 개성이 두드러져 통일성 있는 융화의 화음을 이루기 어렵고 두성 발성은 성대의 힘을 훨씬 덜 가하여 이루어지는 발성으로 성대의 울림 자체는 약하나 머리의 울림을 통하여 음량을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흉성 발성에 특징과 두성 발성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어떤 발성으로 어

13) 이동훈(1997), 전개서, p. 201.

린이 합창을 지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해진다.

### 3. 연습과 연주를 위한 선곡 과정에서 음악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sup>14)</sup>

- 1) 음역: 소리의 울림을 위한 적합한 음역, 합창단의 소리의 빛깔을 낼 수 있는 음역, 각 파트의 상황을 고려한다. (약간의 이조는 필요함)
- 2) 곡 선정: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는 곡이어야 하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표현해 내는 무대인가에 따라서 곡이 달라지며 단원들이 소화해 낼 수 있는 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이해하고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곡이면 좋다. 외국어로 되어 있어도 내용이 교육적이어야 하며, 발음과 의미에 대한 지도가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초보 합창단일수록 합창단이 잘 부를 수 있는 곡을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쉬운 곡을 잘 소화해 연주를 잘하는 것이 어려운 곡을 잘못 부르는 것보다 훨씬 좋다.
- 3) 합창단 인원: 단원의 수를 고려해서 합창의 형태를 정한다.
- 4) 연습 시간과 단원 수준 고려: 어린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긴 시간의 무리한 연습을 할 경우 단원들이 쉽게 지쳐 버리므로 목을 쉬기 위해서 짧은 휴식 시간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때 발성과 자세가 바르지 못한 단원들을 모아서 개인 레슨을 하면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 5) 안무 : 요즘 어린이 합창뿐만이 아니라 많은 합창단들은 안무와 함께 노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청중에게 대한 서비스 차원 뿐 아니라 어린 단원들에게 다양하고 변화 있는 구성으로 그들이 흥미롭게 합창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합창 안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창의 소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않게 가벼운 동작으로 안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4) 김희철.“어린이 합창 지도법”, 2010년 4월 7일. < <http://www.cafe.daum.net/agapemusic>, 2009년 10월 3일 >

#### 4. 지도력을 갖는 지휘자의 자세

좋은 지도력을 가진 지휘자는 여러 형태의 피드백을 연주자들에게 부여 함으로써 그들이 따라오게 만든다. 사랑하는 감정으로 그들을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자신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때로는 엄하게 지도를 하여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엄함과 명령은 연주자들을 주눅 들게 만들고 연주자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다 표현해 내지 못한다.

교육이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곧 발전을 의미하며 흥미가 유발 되어야 하며 곧 사회성과 책임감 모두를 갖게 해야 하는 것이 지휘자의 자세이다.<sup>15)</sup>

합창단의 연습을 시작하기 전, 지휘자는 가르치려는 작품에 대해서 사전 연구를 하여 충분히 마스터하는 일이다. 지휘해야 할 작품을 피아노로 치면서 합창의 모든 파트를 연습하여서 각 멜로디 진행 등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 성부의 화음의 균형이나 음정, 리듬, 조화에 대한 판단을 누구 보다 먼저 지휘자가 할 수 있고 준비 되어 있어야 한다.

즉, 여러 성부 중에서 한 성부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각 성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음정이 틀리는지, 목소리가 튀어 나오는지, 가벼운 리듬으로 인해 템포가 빨라지는지, 여러지면서 템포가 느려지는지를 잘 듣고 판단하여 지적 하고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연습이 효과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나누어 활용하는 방법, 연습곡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 등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지휘자의 덕목이자 음악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휘자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든지 새로운 지도방법을 통하여 표현하고 가르치며 합창음악을 주도하는 역할인 것이다.

15) 김정률(1982), 「아동발달과 교육」, 서울: 학문사, p.113.

### Ⅲ. 연구의 절차 및 방법

#### 1. 문제의 설정

제주도내 사설 어린이 합창단을 중심으로 합창 지도 실태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가. 지휘자의 지도 실태

- 1) 지휘자에 대한 실태
- 2) 단원 선발에 대한 실태
- 3) 합창단 운영에 대한 실태
- 4) 발성 지도에 관한 실태
- 5) 가사 전달 지도에 대한 실태
- 6) 음악적 표현 지도에 대한 실태

나. 단원의 실태

#### 2. 도구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선행 연구와 참고 논문 및 참고 문헌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 교수의 지도 아래 본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제시하여 어린이 합창 지도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단원 선발에 대한 문제와 발성 지도 및 가사 전달을 위한 지도 등 지휘자에게 31개 문항과 단원들에게 15개 문항의 설문지를 하였다.

### 3.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현재 제주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설 어린이합창단의 지휘자와 단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 4. 자료 수집 및 처리

제주도내 사설 어린이 합창단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는 12개 합창단 중에서 설문지가 회수된 9개 합창단의 지휘자와 각 단체별 합창 단원 각 15명을 대상으로 하여 합창 단원 총 135명 중, 미제출 4명을 뺀 131명의 단원이 설문 조사에 응하였다.

## IV. 제주도내 사설 어린이 합창단의 실태조사 분석과

### 효과적인 지도방법 연구

#### 1. 지휘자의 지도 실태

합창단을 지도하고 있는 지휘자에 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휘자 개인에 관한 실태, 단원 선발, 합창단 운영, 발성 지도, 가사 전달 지도, 음악적 표현 지도 등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 가. 지휘자에 관한 실태

<표 1>에서 지휘자의 성별을 보면 여성지휘자들이 67%로 2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지휘자라면 남성들이 대부분이었으나 근래에는 여성 지휘자가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어린이 합창단의 지휘자로서 남성과 여성이 성별에 따른 실력차나 능력의 차이는 없다고 본다. 어린이들을 어떻게 잘 통솔하고 지도 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 능력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표 1> 지휘자의 성별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남	3	33
여	6	67

지휘자의 연령은 40대 이상이 8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30대 후반이 11%를 차지하고 있다. <표 2>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볼 때 경력이 많은 지휘자가 지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지휘자의 연령 구성의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30대	0	0
30대 후반	1	11
40대	7	78
40대 후반	1	11

<표 3>을 보면 지휘자의 전공은 성악이 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휘를 전공한 지휘자는 없다.

합창 지도에 있어서 지휘자의 전공에 관한 문제는 중요하다. 지휘자는 합창 음악을 완성시켜가는 전문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악적인 지식을 갖춰 지휘함으로써 음악적 표현에 있어 책임 있는 덕목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

합창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연륜도 중요하지만 성악이나 작곡, 피아노, 관현악 전공자는 음악적인 면으로는 잘 지도할 수 있으나 바람직한 합창 지도를 위한 세미나 또는 발성 연구에 관한 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표 3> 지휘자의 전공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성악	6	67
피아노	1	11
작곡	1	11
관현악	1	11
지휘	0	0

지휘자의 지도 경력은 <표 4>에서 12년 이상이 45%로 가장 많았다. 경력이 많은 지휘자가 경험이 풍부하여 아이들의 정서 발달 및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표-4> 지휘자의 지도 경력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5년	0	0
8년 내외	2	22
10년 이내	3	33
12년 이상	4	45

합창 지도에 관한 전문적인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지휘자는 <표 5>에서와 같이 78%이고 받지 않은 지휘자는 22%로 나타났다. 또한 지휘자 면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전문적인 합창지도 연수는 한두 번 받은 정도였고 합창 지도에 관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도 지휘자마다 어린이 합창단에 대한 견해와 지도방법에 대하여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효과적인 합창 지도를 위해서는 전문 합창지휘자에게 연수의 기회를 만들어 가능하다면 자주 연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표 5> 지휘자의 전문적인 연수 경험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있다	7	78
없다	2	22

## 나. 단원 선발에 관한 실태 파악

단원의 모집 방법에서는 <표 6>에서처럼 주로 정기 오디션을 통하여 선발하는 경우가 5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합창 단원의 선발 방법으로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디션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음악적 자질이나 실력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하는 어린이가 모두 조건 없이 단원으로 선발되거나 부모님의 권유 혹은 반강제로 입단하는 경우 그 실력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합창단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창을 만들어내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표 6> 단원들의 오디션 유무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정기적	5	56
부정기적	3	33
하지않음	1	11

<표 7>에서 조사한 결과 합창단 시작 연령은 초등 3~4학년이 56%로 가장 많고, 초등 1~2학년에 입단시키는 단체는 33%로 단원모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학년 어린이들도 단원으로 입단 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어린이들이 합창단원으로서의 시작은 4학년 때부터가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4학년이 되면 소리의 음역이 넓어지며 훈련만 잘되면 두성 발성으로 노래해도 부족함이 없는 소리를 낼 수 있으며, 5~6학년은 가장 발달된 어린이 소리를 보여주는 시기이다.

<표 7> 단원들의 합창단 시작 연령의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미취학	0	0
초등 1-2학년	3	33
초등 3-4학년	5	56
초등 4-5학년	1	11

<표 8>에서 합창단원의 인원 구성은 30~35명이 33%를 차지해 있고 20~25명이 11%로 대체적으로 단원 모집이 어려워 적절한 편성을 유지하는 데는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 8> 단원 편성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20-25명	1	11
25-30명	1	11
30-35명	3	33
35-40명	2	22
40명이상	1	11

제주도내 사설어린이 합창단 12개 단체에서 남자 합창단으로만 구성되어진 합창단은 한 단체이며 11개 합창단은 전부가 혼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9>에서 단원의 남, 여 구성비를 조사해 본 결과는 남2:여8 비율이 67%로 가장 많았고 여자 어린이들이 대부분의 합창단을 구성하고 있다.

<표 9> 단원들의 남녀 비율(10명을 기준으로)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남1:여9	0	0
남2:여8	6	67
남3:여7	1	11
남4:여6	1	11
남자 전부	1	11

파트의 균형은 소리의 적절한 비율을 의미한다. 어느 한 파트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소리의 균형을 잃게 된다. 소프라노의 소리가 다소 볼륨을 크게 비중을 갖게 하는 멜로디 우위 조절법을 적용하고 알토의 소리가 적절한 저음부의 표현이 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 오도록 사운드 배합이 중요하다. <표 10>결과 파트의 균형은 잘 맞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합창에서 성부간의 사운드 안배는 가장 중요한 합창 기술이 아닐 수 없다.

<표 10> 파트 편성의 균형 실태 (\* 2성부 편성일 때의 합창단을 조사하였음.)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소프라노가 많음	1	11
알토가 많음	1	11
균형이 맞음	7	78

#### 다. 합창단 운영에 관한 실태

<표 11>에서 합창단의 연습실 보유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단체들이 전용연습실이 갖춰지지 않고 다목적실에서 다른 단체들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 정서에 알맞은 실내 분위기와 합창연습에 필요한 시설보충이 필요하다.

합창단의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려면 전용연습실이 있어서 감상 시스템까지 갖추어진다면 연습하기 전에 부를 노래에 대해 동영상을 참고로 감상 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인 합창 지도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표 11> 전용연습실의 유무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있다	1	11
없다	8	89

<표 12>는 어린이 합창단의 주당 연습 시간에 있어서 주 2회가 56%로 가장 많았고, 주 1회가 44%로 나타났다.

합창단 행사가 많고 1년에 정기연주회를 기획하여 레파토리를 넓혀가기 위하여서는 주 2회인 연습 횟수가 결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12> 연습 횟수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주1회	4	44
주2회	5	56
주3회	0	0
주4회	0	0

<표 13>에서 한 주간의 총연습 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2시간이 33.3%, 3시간이 33.3%, 4시간이 33.3%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이 지구력이 없고 참을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지휘자가 융통성 있게 연습 시간과 휴식 시간을 조절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같은 연습 시간을 가지고서도 그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표 13> 한 주간의 총연습 시간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1시간	0	0
2시간	3	33.3
3시간	3	33.3
4시간	3	33.3

<표 14>에서 정기발표회는 1년에 한 번이 44%이고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다가 56%로 나타났다. 파트간 적절하지 못한 편성과 전용연습실 미확보, 재정적 어려움, 연습시간 제한 등의 이유로 정기연주회를 못하는 단체도 있다.

<표 14> 정기발표회 주기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하지 않음	5	56
1년에 한 번	4	44
2년에 한 번	0	0
3년에 한 번	0	0

<표 15>에서 어린이 합창단을 위한 인터넷 카페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단체는 67%로 단원들과의 정보를 나누고 타 합창단원간의 친교의 장으로 활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 운영은 어린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유명한 합창단이 연주하는 모습을 통하여 단원들이 배우게 될 합창곡을 미리 익히고 노래 부르는 표정 및 발성법까지도 본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단원들의 학부모나 어린이 합창단 운영위원들도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 운영을 함께 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표 15> 합창단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 유무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있다	6	67
없다	3	33

<표 16>에서 합창단 운영의 어려운 점은 단원들의 활동 주기가 짧은 것과 단원 모집이 매우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요즘 학생들이 교과과목에 치중하여 고학년이 되면 교과목 학력 보충을 위하여 학원에 다니느라 합창단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휘자들은 효과적인 합창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16> 합창단 운영의 어려운 점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재정	0	0
단원들의 활동주기가 짧은 것	4	44
단원 모집	5	56

#### 라. 그 외의 운영상 어려운 점

어린이 합창단 운영의 어려운 점은 어린이 발성이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일이 요구 되는 바 단원들의 활동 주기가 짧아 새로운 신입 단원을 모집하고 발성이 익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해야 하는 어려운 점과, 단원들이 학원의 과외수업으로 단원들의 연습 참여가 들쭉날쭉하여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마. 발성 지도의 실태

<표 17>은 합창 지도 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응답은 발성 지도가 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변성기 어린이 발성 지도가 33%로 나타났다. 변성기 어린이들을 위한 발성 지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대체적으로 발성법을 진성으로만 지도하는 단체로, 변성기에 높은음에서는 소리내기가 곤란하여 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변성기에는 올바른 발성 지도를 함으로써 성대를 보호하고 좋은 소리로 변화하기에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결과로 어린이 발성 지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7> 합창 지도에서의 문제점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호흡	1	11
공명	0	0
발성	5	56
변성기	3	33

발성법 지도 실태에서는 <표 18>과 같이 두성과 흉성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단체는 45%였으며, 두성과 진성 중 한 가지만 가르치는 단체도 있었다. 이와 같이 발성법에 대한 논란이 많으므로 지휘자가 더 많은 연구를 하여 각 합창단에 맞는 발성법을 적절히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두성만을 강조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렇다고 흉성으로만 소리를 내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두성의 사용은 주로 높은 음역의 소리를 정확하고 고운 소리로 낼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고, 흉성은 저음역의 소리를 고르고 안정되게 낼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표 18> 발성법 지도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진성	2	22
두성	3	33
둘 다	4	45

#### 마. 발성법 선택 이유

합창단 지휘자 중에서 진성만으로 합창을 하는 지휘자의 대답은 어린이의 맑은 소리를 선호하기 위해서라고 답했고 두성 발성만을 선택한 지휘자는 다양한 음역의 곡 선택과 소리의 통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였다. 진성과 두성을 고루 사용하는 단체에서는 저학년이 많은 경우 두성 발성이 단시일에 되지 않아서 저음

에는 진성, 고음에는 두성을 사용하고 있다.

<표 19>는 합창 단원들이 발성과 호흡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잘 따라한다’가 67%로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발성과 호흡을 잘 따라하고 있고, 흉성이나 가성을 쓰는 학생이 33%이다.

어린이들이 발성, 호흡 같은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휘자는 시범창이나 또는 단원 중 좋은 소리를 가진 단원의 소리를 모델로 제시해 주어 단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적절한 예를 들어 지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휘자가 발성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표 19> 단원들의 발성 이해도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잘 따라함	6	67
흉성이나 가성을 많이 씀	3	33
잘 모름	0	0

#### 사. 가사 전달 지도에 관한 실태

노래를 통하여 가사를 전달하는 경우는 언어로만 전달하는 경우와 리듬의 강약 표현법을 좀 더 섬세하게 하도록 지휘자의 요구와 지도를 하여야 한다. 언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성에도 발음을 실어서 표현 되어야 하는 것이 합창음악의 특성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발성에는 호흡과 공명, 횡경막의 사용등과 같이 몸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20>은 합창 연주 시 듣는 이들에게 가사의 전달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가사 전달이 78%로 잘되고는 있으나 일부는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래하는데 있어서 가사의 정확한 전달은 그 내용과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노래할 때는 호흡의 양이 많이 필요하고 깊이 들이 쉰 호흡 동안 정해진 프레임즈만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저음역에서부터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에다 정확한 발음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가사 전달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다.

**<표 20> 합창 연주시의 가사 전달 여부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그렇다	7	78
그저 그렇다	2	22
잘 되지 않음	0	0
잘 모름	0	0

정확한 가사 전달을 위해서는 노래를 할 때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사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어진다. <표 21>의 문항에서 지휘자들이 효과적인 가사 전달 방법이나 발음 지도를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가사 발음 지도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항상 지도	9	100
가끔 지도	0	0
신경쓰지 않음	0	0
단원에게 맡김	0	0

<표 22>는 가사 발음을 지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모두가 역점을 두고 있다. 지휘자들은 대체로 가사 발음 지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인 가사를 표현하도록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효과적인 가사 전달을 위한 발음 지도 방법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있다	9	100
없다	0	0
잘 모름	0	0

**아. 음악적 표현 지도에 관한 실태**

음악적 표현이란 곡의 분위기나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그 곡에 맞게 셈여림을 살린다거나 곡의 내용에 따른 빠르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그 곡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곡을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곡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훌륭한 연주가 되느냐 어색한 연주가 되느냐 결정 되어지는 것이다.

음악적 표현 지도 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에는 <표 23>과 같이 음색의 통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각자 개성이 있는 진성을 사용하면 소리의 통일이 어렵다. 음색의 통일을 위한 소리 모으기 발성 지도가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양질의 음악을 연주하는데 있어서 음악적이고 예술적 표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표 23> 표현 지도 시 가장 중요한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지휘 동작	1	11
악구 처리	0	0
악상 처리	2	22
음색의 통일	6	67

지휘자가 악곡을 선정하고 음악적인 표현을 하고자 할 때 <표 24>와 같이 지휘자들이 합창곡집을 찾아서 혼자 선곡을 하고 있었다. 음악을 잘 표현하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악곡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신중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이 곡에 대한 선호도와 그 곡을 원만하게 소화해 낼 수 있는가 등을 고려하여 악곡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단원들의 능력보다 월등하게 높은 곡을 선정하게 되었을 때는 그 곡을 원활하게 연주할 수 없어서 지도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반대로 수준이 낮은 곡을 선택하였을 때는 단원들의 흥미가 떨어져 참여가 저조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악곡선정은 단원들이 합창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풀어낼 뿐만 아니라 음악적 표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표 24> 악곡 선정과 음악적 표현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동료들에게 자문을 구함	1	11
혼자 선곡	6	67
전문가에게 의뢰	1	11
다른 합창단 연주 참조	1	11

합창연주 시 곡의 표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반주자에게 미리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는 조사에서는 <표25>와 같이 ‘매우 그렇다’가 44%로 높기는 하지만 ‘조금 그렇다’ 또한 44%이다.

반주자가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지휘자가 곡을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하고자 하는지 지시하지 않는다면 반주자도 임의로 곡을 해석하고 반주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는 반주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하여 지시해 줄 필요가 있다. 연주 효과를 위해서 합창단의 노래와 반주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25> 반주자 지시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그렇다	4	44
조금 그렇다	4	44
아니다	1	11
반주자에게 일임	0	0

악구(Phrase)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리듬이나 숨표에 의해 구분되어 지기도 하지만 주로 가사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레이즈(Phrase)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가사의 근본 내용을 이해하고 악곡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강조할 프레이즈와 전체적인 곡의 절정(Climax)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프레이즈의 표현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곡의 내용과 노래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표 26>은 이러한 프레이즈를 그 곡에 맞게 표현하기 위한 지도 여부를 묻는 것으로 대부분의 지휘자들은 ‘그렇다’가 67%, ‘조금 그렇다’가 33%로의 결과가 나왔다.

<표 26> 악구(Phrase) 표현에 대한 지도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그렇다	6	67
조금 그렇다	3	33
아니다	1	11
반주자에게 일임	0	0

합창 단원들이 악곡을 어떻게 이해하고 노래로서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지휘자가 단원들에게 그 악곡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였는가에 따라 단원들이 곡에 대한 해석과 표현 능력이 성장할 수 있으며 흥미를 갖고 합창에 임하게 된다. <표 27>과 같이 대부분의 지휘자는 곡의 분위기를 100%로 이해시키고 있다.

<표 27> 곡의 분위기 이해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이해시킴	9	100
이해시키지 않음	0	0
단원에게 맡김	0	0
중요하지 않음	0	0

<표 28>은 합창 단원들이 전체적으로 가장 음악적 표현 능력이 뛰어난 부분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박자를 잘 맞추는’이 78%로 가장 잘되고 있고 ‘셈여림’과 ‘리듬감’이 11%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지휘자가 평소에 단원들에게 훈련을



잘 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28> 단원들의 음악적 표현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셈여림 표현	1	11
박자를 잘 맞춤	7	78
스타카토 표현	0	0
리듬감	1	11

선곡한 곡의 연주 방법에 대한 질문이다. <표 29>와 같이 지휘자들은 대체로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연주하게 되는 경우가’ 89%로 나타났다. 선곡한 곡에 대해 지휘자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악보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를 연주한다’ 11%로 나타났다.

어떤 곡이든지 작곡가가 의도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주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곡에 대해서 지휘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지휘자는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나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선곡한 곡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음악적으로 잘 분석하여 지도해야 한다.

<표 29> 효과적인 악곡의 표현 방법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악보 표시를 지킴	1	11
임의로 해석	8	89
다른 합창단 모방	0	0

## 2. 단원의 실태

다음은 단원의 실태에 관한 내용이다. 각 문항을 토대로 어떠한 계기로 단원들이 모집되었는지 또는 단원들의 연령이나 합창단에 입단한 경력과 음악의 기초 지식과 합창에 대한 이해가 어느 수준이었던가를 알고자 하였으며 이와 같은 조사를 토대로 합창단 단원들의 분포와 수준을 알 수 있었다.

단원 실태조사는 한 합창단에 15명을 기준으로 무작위로 설문에 참여하게 하여 <표 30>과 같이 남자 단원은 36% 여자 단원은 64%로 조사하였다.

<표-30> 단원들의 성별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남	47	36
여	84	64

<표 31>은 학생들의 입단 동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부모님의 권유가 63%로 가장 많았고, 자발적인 입단이 3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어린 학생이라 부모의 권유에 의하여 입단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표 31> 입단 계기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자발적	48	37
부모님 권유	83	63

<표 32>에서 단원들의 활동 경력은 1년 이내가 41%로 가장 많았고, 2년 이내는 36%로 활동 경력이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2009년도에 창단된 합창단이 한군데 있는 이유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어린이 합창단의 활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휘자 입장에서는 합창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표 32> 단원의 경력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1년 이내	54	41
1년 이상 ~ 2년 이내	47	36
2년 이상 ~ 3년 이내	20	15
3년 이상	10	8

<표 33>은 ‘화음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단순한 질문이다. 이에 응답한 단원의 79%는 ‘알고 있다’는 답을, 21%는 ‘모른다’라고 답하였다. 이 설문을 하게 된 이유는 합창에서의 매우 중요한 화음을 어느 정도라도 이해하고 있어야 아름다운 합창음악을 창조적으로 참여하며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3> 화음 인지 여부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안다	104	79
모른다	27	21

청음은 시창과 더불어 음악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 기본적인 학습 과정이다. 특히 합창과 같이 여러 사람의 목소리의 조화가 필요할 때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음에 대한 교육은 시창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음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음감이 밑바탕 되어야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기는 매우 힘들다.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음악적 기초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음 연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표 34>의 결과 50%가 ‘청음 연습을 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고, 50%는 ‘청음 연습을 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을 하였다.

<표 34> 청음 연습 여부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있다	65	50
없다	66	50

사춘기의 어린이 성대에 변화가 일어나 목소리가 변하는 시기는 대체적으로 12세에서 15세 무렵이다. 특히 남자의 경우 변성기에 목소리의 변화가 심하다. 이러한 변화의 단계에서 잘못된 발성법이나 생활 습관에 의해 목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목이 쉬거나 고통이 있을 수 있다. 단원들 스스로 주의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변성기에 대한 인식 여부를 조사하였다.

<표 35>의 결과 69%가 변성기를 알고 있고 31%가 모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지휘자는 단원들에게 변성기에 대한 사전 지식과 변성기 어린이들을 위한 발성법을 제안하여야 할 것이다.

<표 35> 변성기 인지 여부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안다	90	69
모른다	41	31

조성을 알고 있는냐 는 질문에는 <표 36>의 결과와 같이 41%가 알고 있고 59%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 있어야 악곡을 쉽게 이해하고 합창 활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 악보를 이해하려면 계이름 읽기 및 조성을 통한 곡의 전체 분위기를 이해하고 알고 부르면 연주 효과는 더욱 좋아질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표 36> 조성 인지 여부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있다	54	41
없다	77	59

합창곡이 가지는 곡의 분위기나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서는 그 곡에 맞는 셈여림을 살린다거나 곡의 내용에 따른 빠르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음악적 표현인 악상 기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표 37>와 같이 악상기호 인지 문제는 79%가 알고 있고, 21%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7> 악상 기호 인지 여부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있다	104	79
없다	27	21

<표 38>은 단원들이 다루어 본 악기에 대한 것으로 중복 응답을 가능하게 하였다. 가정에서 사교육으로 이루어지는 피아노가 65%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기타, 드럼 등 다양한 악기를 다루어 본 어린이도 34%를 차지했다. 악기를 다루어 본 경험이 풍부할수록 음악의 기초 지식이 많아 악보를 쉽게 보고 음정이 정확하며 음악적 표현도 잘하게 된다.

<표 38> 악기 연주 유무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피아노	85	65
플루트	10	8
바이올린	18	14
첼로	2	2
그외	44	34
없음	5	4

악곡에 따라서 조표가 많은 곡에는 계이름 읽기가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변화 화음이 있는 곳에는 계이름으로 노래를 부르고 연습을 하면 음정을 정확하게 낼 수 있다. <표 39>는 계이름을 먼저 불러보고 노래 연습하는 합창단은 37%가 되고 63%는 가사로만 노래 연습을 한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저학년이 많은 합창단의 경우는 지휘자가 단원들에게 음계의 종류와 계이름 읽는 방법과 음표와 쉼표의 길이, 악상 기호 등 악보의 기초적인 지식을 세심하게 가르쳐 주어야 효과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표 39> 노래할 때 순서 여부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계이름 먼저	49	37
가사 먼저	82	63

전문합창단의 경우 노래를 시작하기 전 성대를 풀어주며 연습에 대한 긴장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발성 연습을 실시한다. 특히 어린 단원들이 각자의 개성이 있는 소리를 내면 음색의 통일을 가져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도입 단계에서 발성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표 40>은 합창단 별로 15분 이상이 40%로 가장 많았고, 10분이 37%로 조사되었다.

<표 40> 발성 연습 소요 시간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5분	28	21
10분	48	37
15분 이상	53	40
무응답	2	2

어린이 합창에서 발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호흡에 있다. <표 41>에서는 74%가 호흡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모른다는 34%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바른 호흡은 훌륭한 자세와 함께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 기본이다. 보통 때의 호흡은 무심코 이루어지며 노래할 때의 호흡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숨을 들이쉬고 싶어도 아무 때나 들이 쉬어서는 안 된다. 음악이 요구하는 곳에서 기술적으로 조절하며 내쉬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숨을 들이쉬기, 내쉬기의 방법을 알아야 한다.

<표 41> 호흡법 인지 여부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안다	97	74
모른다	34	26

합창은 여럿이 함께 노래하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정을 느끼며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다. 호흡과 감정의 몰입으로 마음의 평안과 함께 정신이 밝아짐을 느끼게 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감정이입이 더 잘되기 때문에 합창을 통한 단결심과 정신적인 평온을 더 쉽게 느낄 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표 42>에서와 같이 69% 단원들은 마음이 밝아짐을 느낄 수 있었고, 34% 단원들은 그렇지 못함이 조사되었다. 이런 결과는 단원들의 입단 동기가 부모의 권유로 들어 왔거나 음악적 지식이 없고, 음정이 정확치 못한 어린이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여 마음이 밝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42> 합창을 하면 마음이 밝아지는가 여부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그렇다	90	69
아니다	44	34

합창은 독창과 달리 함께 노래하는 단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주위가 산만한 어린이들은 합창을 하면 제한된 행동을 해야 하는 관계로 꾸준히 연습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져서 합창의 흥미를 잃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의 조사 결과, 합창을 하면 하나가 됨을 느낄 수 있다는 어린이가

57%라고 답하였다. 지휘자는 단원들이 합창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하는 즐거움을 찾고 협동심을 가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정신을 키우도록 도와주며 강조되어 져야 한다.

<표 43> 합창을 하면 하나가 되는지 여부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그렇다	75	57
아니다	45	34
무응답	11	8

합창단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의 개설 운영 유무 조사에서는 <표 44>와 같이 67%는 운영하고 있다고 나왔고, 37%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자신이 소속한 합창단의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배우게 될 합창곡을 유명한 타 합창단이 연주한 모습을 찾아보고 악곡을 익히고 노래 부르는 표정 및 발성에 까지도 본받게 된다면 연주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표 44> 합창단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 활용 유무 실태

구분	응답자 수	백분율(%)
있다	48	37
없다	83	63

### 3. 분석 결과

합창에서는 음악적인 지식과 표현 능력 등 음악적인 소양을 지휘자에게서 배우고, 단원과 단원들 간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사회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합창의 역할은 어린이 합창단에 있어서 더욱 더 중요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들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이 논문을 통해서 합창 지도에 필요한 내용을 제시함과 동시에 제주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사설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 지도 실태를 지휘자들과 단원들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을 하였다.

#### 가. 지휘자의 지도 실태조사

##### 1) 지휘자에 관한 실태

지휘자의 성별은 여성 지휘자들이 더 많았고,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았다. 전공별로는 성악 전공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휘자가 합창 지도에

관한 전문적인 연수 경험을 가진 78%의 지휘자는 한두 번 연수를 받은 정도였다. 지도 경력은 12년 이상의 지휘자가 많았다.

## 2) 단원 선발에 관한 실태

합창단의 단원 선발에 있어서 정기 오디션을 통하여 입단 시키는 단체는 절반이 되었으나, 그렇지 못한 단체에서는 음정이 떨어지거나 음악적 표현 능력이 저하되는 저학년을 단원으로 입단시켜 적정 연령대인 4~6학년의 단원 확보가 어려워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단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원의 학년 분포를 보면 3~4학년의 학생들이 절대 다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합창단 별 단원의 수는 30~40명 편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파트의 편성과 균형을 맞추어 운영하고 있었다.

## 3) 합창단 운영에 관한 실태

합창단은 기본적으로 피아노가 구비된 방음 시설이 원만히 갖춘 전용 연습실이 구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습실은 확보되어 있다고 하여도 다용도실로 타 단체들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합창연습 분위기에 맞는 내 환경이나 감상시스템을 구비하여 운영하기란 어려운 여건이며. 연습 횟수는 주 2회가 가장 많았고 한 주간의 총연습 시간은 2시간, 3시간, 4시간 등으로 다양했다. 매년 개최하는 정기연주회는 5개 합창단이 하지 않고 있으며, 1년에 한 번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4개의 합창단에 불과하였다. 합창단의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는 6개의 모범적인 사례로 나타나 있었으며, 합창단 운영의 가장 큰 운영상 어려움은 훈련된 합창단원들이 오래 활동하지 못하고 합창단을 이탈하는 경우를 꼽고 있었다.

## 4) 발성 지도

지휘자들은 합창 지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발성으로 꼽았으며 진성과 두성을 모두 쓰는 합창단도 있었고, 진성과 두성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어린이 합창 발성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합창단원들의 변성기에 대한 지도도 세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변성기에 단원들에게 체계적인 발성법에 대한 지도는 더욱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 5) 가사 전달 지도에 관한 실태

지휘자들은 가사 전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발음이 지도도 항상 강조하고 있으나 단원들의 가사 전달 표현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 6) 음악적 표현 지도에 관한 실태

음악적 표현 지도에 있어서는 음색의 통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주로 지휘자가 혼자 선포하며 곡을 해석한다는 결과가 가장 많았다. 반주자와의 관계에서 음악적 요구를 직접 지시한다는 조사에는 조금 그렇다는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다. 악구 표현에 대한 지도는 조금 신경 쓰고 있다고 하였고, 단원들에게 곡의 분위기를 이해시키기에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단원들의 장점으로 박자를 잘 지키는 것을 꼽았고, 곡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해석으로 연주를 한다고 하였다.

#### 나. 단원의 실태조사

- 1) 합창단원들이 입단 동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활동하는 어린이가 많았다.
- 2) 단원들의 활동 주기는 1~2년이 가장 많아서 활동 주기가 짧은 것이 문제였으며, 음악적 기초 지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화음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었다.
- 4) 청음에 대한 교육은 시창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50%어린이가 교육을 받았다고 하였다. 합창은 여러 사람의 목소리와의 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또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으로 합창단 연습 시 시창과 청음의 지속적인 지도가 있어야 한다.
- 5) 변성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조성, 악상 기호에 대한 이해, 음정의 정확성을 터득하기 위해 노래 부르기 전에 계이름 먼저 읽어 노래 부르기 등 기초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악기를 다룬 경험이 풍부하여 악보 보는 법에는 비교적 익숙해 있었다.
- 6) 합창을 하면 호흡과 감정의 몰입에 의한 마음의 평안과 함께 마음이 밝아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입단 동기가 자발적이지 못하고 부모의 권유로 입단한 어린이는 흥미를 잃어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활동한다고 하였다. 공동사회의 일원으로서 합창을 하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식이 요구



되고 있었다.

- 7)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는 단체는 많으나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 단원이 많았다. 자신이 부를 합창곡을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주 듣고 동영상 볼 수 있다면 합창 연습 시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다.

#### 4. 실태 분석에 바탕한 효과적인 지도방법

어린이 합창단은 어린이들의 심리적 특성이나 그들의 느낌 등을 세심하게 고려한 리허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좋은 연습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그 날 연습할 곡의 느낌에 따라 첫 인사에서부터 발성 연습 등 계획성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본 연구자는 어린이 합창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하여 효과적인 합창 지도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가. 합창 연습 준비 단계

- 1) 음악의 기초 설문 분석 결과 <표 36>의 구성에 대한 이해도와 <표37>의 악상 기호에 대한 이해도를 살펴보면 상당수 어린이가 이해도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음악의 기초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합창 연습 전에 짧게 계이름 읽기와 악상 기호에 대하여 이해시킨다면 악보를 쉽게 보고 곡에 대한 이해가 향상될 것이다.
- 2) 어린이들에게 변성기 인지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표 35>를 보면 변성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서 변성기에 소리내기의 주의할 점을 가르쳐 주며 변성기 어린이들을 위한 개개인의 음역을 확인하고 파트를 나누어 합창음악을 편성 한다.
- 3)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 활용 유무 실태 설문 분석 결과 <표 44>를 보면 컴퓨터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어린이들이 합창단 활동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수한 타 합창

단이 부르는 연주곡과 비교하여 자주 들어보도록 하여 발성과 곡의 느낌을 모방하여 흥내를 내도록 지도하는 방법 또한 중요하다.

## 나. 합창 연습의 단계 및 과정

### 1) 발성전의 위명업

합창은 여럿이 함께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표 41>의 설문 분석 결과와 같이 소극적이며 부모의 강압에 의해 입단한 어린이들은 흥미를 잃어 적응이 어려워한다. 지휘자는 단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합창에 임할 수 있도록 시작 전에 긴장된 몸과 마음을 풀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소리 내는데 관련된 신체적 운동에 도움이 되는 몸놀림운동 등 모든 근육을 풀어 주며 단원들과 마주보며 즐거운 분위기를 유도하며 아래와 같은 동작을 지도한다.

가) 목운동을 통한 목, 성대, 인후부 주위의 근육을 이완시킨다. ‘푸르르’ 하며 입술을 풀어 주고, 혀도 ‘탁 탁 탁’ 소리를 내며 풀어 준다.

나) 가까이 있는 단원의 어깨나 등을 두드려 준다.

다) 오른쪽 어깨를 귀까지 올렸다가 그대로 힘을 빼서 내려오게 하고 반대로 왼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후에 양쪽을 동시에 실시한다. 이때, 어깨의 앞뒤로 돌려 큰 원을 그리도록 움직인다.

라) 머리를 좌·우로 떨 준다. 같은 방법으로 전·후로 떨 준다.

마) 자유롭게 하품과 한숨을 쉬며 기지개를 편다.

바) 자세 지도: 가장 기본적인 가창의 자세는 편안하고 힘을 주지 않는 자세로부터 비롯된다. 상체를 약간 편 자세로 가슴을 넓혀 어깨나 목에 힘을 주지 않고 무릎은 편안하게 양발을 벌려 한 쪽 끝에 힘을 더 실어 자연스럽게 서도록 한다. 이러한 자연스럽게 좋은 자세만이 올바른 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고 좋은 자세를 갖도록 한다.

## 2) 합창 소리 만들기

가) 호흡 지도: 좋은 소리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호흡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41>의 설문 결과 74%의 단원들이 호흡법은 알고 있으나 실제 가창과 연계하여 호흡함에 있어서는 조사결과 어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쉽게 호흡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예를 들어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흡 방법으로는 첫째, 양팔을 수평으로 벌린 자세에서 들숨(흡입)시에는 양팔을 뒤로 들어 올리고 날숨(배기)시에는 양팔을 다시 아래로 내린다. 둘째, 하품하기, 한숨짓기, 웃기, 등을 실습하여 본다. 이 연습은 심호흡을 돕는 좋은 생리적 현상이다. 셋째, 진한 장미꽃 향기를 흠뻑 들어 마시는 흉내를 내 본다. 적절한 호흡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습관을 갖도록 일반적으로 호흡할 때 들숨은 코로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날숨은 입을 통해서 하고 의도적으로 하도록 한다.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 올 때 흡입되는 감각을 갖게 되는데 이때 소리를 내서는 안된다. 노래를 부를 때 가능한 짧은 시간에 많은 공기를 들어 마시기 위하여 입을 열고 코와 입으로 동시에 사용해야 된다. 각종의 호흡에 관련된 연습은 합창 연습 중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호흡 훈련은 좋은 가창을 위해서 기본적인 활동이므로 지속적으로 호흡 연습이 실시되도록 한다.<sup>16)</sup>

나) 발성 지도: 합창 지도에 있어서 발성 지도가 가장 중요하다. 실태 분석 결과 <표 40>의 결과를 볼 때 40% 정도의 단체만 15분 이상 발성 연습을 하고 연주 행사에 시간이 쫓겨서 실제 연주곡의 진도를 나가기 위해 시간이 부족하여 60% 단체는 그 보다 더 적은 시간을 연습하고 있었다. 효과적인 발성시간은 20~30분 정도는 해야 한다. 그리고 지휘자에 따라서 진성만으로 발성하는 단체도 있었고, 진성과 두성 둘 다 가지고 발성하는 단체도 있었다. 그러나 아름답고 풍부한 합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명된 소리를 필요로 한다. 어린이 발성에 있어서 공명의 기본은 두성부에 있

16) F. Haasemann, and W. Ehmman(1994). 「합창발성의 실제」. 김도수(역) 서울: 미완성출판사. p. 12.

음으로 두성 공명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성을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허밍을 많이 시켜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허밍은 입을 열고 ‘아’를 발음하는 것같이 입모양을 만들어 준 후 입술만 다물어 소리내며 소리는 눈에서 나오듯이 얼굴 위쪽으로 내주어야 하며 ‘흠 -마’ (술술-파미-레도-)등으로 허밍과 ‘아’ 발음을 연결시키며 지도하면 좋다.<sup>17)</sup> 또한 두성 발성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좋은 합창단의 연주 실황을 보여주고 발성법을 본받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가끔은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루하게 느끼는 발성연습의 반복보다 유연한 느낌을 주는 곡을 골라 부르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성연습의 딱딱함을 줄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재미를 부여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연습이 될 수 있다.

다) 발음 지도: 실태 분석 결과 지휘자들은 <표 21>에서와 같이 지휘자들은 합창 연주 시 가사 발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하고 있었다. 노래를 부를 때 발음은 가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가끔 공명된 소리를 내도록 지도를 하다보면 어둡고 무거운 소리를 내는 어린이들이 있다. 노래할 때의 발음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의 발음에 비해 보다 명확하고 조금은 과장 되어야 객석까지 가사 전달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밝은 소리는 입모양과 발음에 매우 관계가 깊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입모양을 수시로 밝게 내도록 지도해야 한다. 따라서 발음 지도를 할 때는 아이들이 각각의 거울을 보면서 발성 연습 혹은 가창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음을 할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한 발음을 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한 활동으로 짝궁끼리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 서로 노래를 부르게 하여 입모양을 관찰하도록 하고 이 때 입모양이 바르고 맑고 고운 소리를 내는 어린이를 앞으로 나오게 한 후 바른 입모양과 표정을 흉내 내도록 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면 전체적인 음색이 밝아지고 입모양도 좋아 진다.

17) 박신화(2009). 「박신화 교수의 합창에 관한 질문과 응답」. 서울: 중앙아트. p. 25.

라) 음색 통일 지도: 합창의 생명은 소리(음색)의 통일이다. <표 23>에서 지휘자들이 합창지도 시 음악적 표현 지도를 할 때는 음색의 통일을 우선으로 하고 있었다.

어린이들의 얼굴 모양이 각각 다르듯이 음색도 모두 다르다. 하지만 합창은 독창과는 다르게 본인 특유의 음색을 계발하기보다는 음색을 통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음색의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는 노래가 시끄럽게 들리고 음량도 작으며 화음도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음색을 똑같이 만드는 훈련은 합창에서 가장 중요하다. 처음으로 두 명 또는 세 명, 네 명의 어린이를 짝지어서 주어진 음을 같이 소리 내게 하여 음질을 통일시켜 전체의 소리를 하나의 소리로 통일시켜 음색을 같게 하는 과정을 교육한다.

### 3) 노래 지도의 실제

가) 길게 소리 내는 부분에서 소리가 처지거나 짧은 호흡 때문에 곡이 끊기지 않도록 반복 연습시키며 마디의 마무리 부분은 끝 음을 살려서 울리기를 강조한다.

나) 고음을 내기에 좋은 방법은 가슴을 펴고 머리의 뒷부분을 올려 키가 커지는 듯한 자세를 만들고 입 안의 공간을 많이 열고 목 것을 뒤로 하여 소리를 뒤로 넣어 소리를 내어 이마로 보내는 느낌으로 소리를 낸다.

다) 얼굴의 안쪽에서 활짝 웃는 느낌을 갖고 노래해야 한다. 기분이 좋을 때 얼굴을 비롯한 머리 부분에 필요한 소리의 울림방이 생긴다. 슬픈 노래를 부르더라도, 이 느낌을 유지한 상태에서 표현해야 하며 그러한 느낌이 나오도록 표현한다.

라) 같은 노래를 계속 연습하는 것보다 배운 노래를 바꿔가며 부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 V. 결 론

음악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 합창의 경우 음악적인 지식과 표현 능력 등 음악적 소양을 지휘자로부터 배우고 단원간의 유대관계를 통하여 사회를 배울 수 있다.

이러한 합창은 어린이 합창단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들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자는 제주도내 사설 어린이 합창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면담을 통하여 지휘자와 단원간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직접 시도해 본 지도 방법과 기존의 연구자들이 연구해 온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참조하였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휘자의 지도에 대한 현황에서 예전에 대부분 지휘자들은 남성 중심이 었으나, 근래에는 여성 지휘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여성 지휘자들이 섬세한 관리와 지휘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 발달 및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고, 음악적 표현 지도와 가사 전달까지도 잘하고 있었다. 그러나 발성 지도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효과적인 어린이 합창 지도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합창단 전문 지휘자를 초빙하여 합창 지도와 발성 연구에 관한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단원에 관한 실태에서는 입단 동기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의 일방적 권유로 입단한 어린이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단원들 간에도 우호적 유대감 형성이 어려웠다.

또한, 합창 지도에 있어서 지휘자는 합창 연습 도중에 단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지도력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었다.

음악적 기초 지식 조사에서 나타난 현황으로 악기를 다룬 유경험 어린이들은 악보 독보력의 기초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 음악 단체 활동과 참여하는데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었다. 그렇지 못한 어린이에게는 지휘자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셋째, 합창단 운영에 관한 실태에서는 고학년 어린이들이 타 교과 과목에 보충 지도를 받기위한 학원에 가기 때문에 어린이 합창단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상

당수 발생하여 단원 구성에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40여명의 편성이 고려된 소리가 덜 익은 저학년 학생이나 음악적 재능이 떨어진 어린이들까지도 단원으로 유입 편성 하다 보니 합창연주의 내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는 어린이를 편성하여 합창을 지도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넷째, 시설면에서는 합창단 전용 연습실이 없는 단체도 있었다. 연습실이 없는 가운데에서 합창 연주활동을 준비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연습실 환경 정비 및 시설 보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이 조사 결과 나타났다.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홈페이지 및 카페 개설로 효과적인 운영을 하는 단체는 일부 있었으나 단원들의 참여도가 낮아서 제대로 활용은 안되고 있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지도 방법이 될 것이다. 합창 연습 시작 단계에서 단원들이 배우게 될 합창곡을 유명한 합창단이 연주하는 모습을 찾아 보여주고, 악곡을 익히게 하여, 노래 부르는 표정 및 발성에 까지도 본받게 하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내어 효과적인 합창 지도가 되어야 한다. 가정에서도 가능한 자신의 합창단 카페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를 얻고 활용을 하여 간다면 연주 능력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설문 조사를 통하여 사실 어린이 합창단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합창 지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지휘자는 합창단과 자신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지휘자 스스로 합창 지도에 관한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하고, 다른 어린이 합창단의 운영 실태를 조사 연구하여 장점을 도입 합창단 지도에 반영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점은 서로 정보를 나누며 합창단 운영을 한다면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

어린이 합창은 어린이들의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인 부분까지의 모든 것을 배려하고 종합하여 교육적 가치를 느끼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음악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포함하여 어린이들에게 맞추어진 리허설과 연주를 그들에게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상호간의 문제와 선생님 혹은 다른 합창단과의 어려움도 있을 수는 있으나, 지도자들의 철저하고 책임 있는 의식과 준비로 지도해 간다면 어린이 합창단의 단원들은 단체 활동을 통하여 성공적인 어린 시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린이 합창은 음악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음악적 만족의 수단이나 청중을

위한 음악적 단체로의 성장이 그 첫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어린이 자신과 그들 개개인의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음악을 통한 정서적, 사회적인 만족감과 성숙함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험과 토대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은 음악이 주는 여러 종류의 혜택을 그들의 인생을 통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참고 도서

- 강신의(1973). 「소녀소녀 합창 지도법」. 서울: 정음출판사.  
김정률(1982). 「아동발달과 교육」. 서울: 학문사.  
남의천(1989). 「합창 다함께 부르기」. 서울: 행림출판사.  
문영일(1984). 「발성과 공명」. 서울: 청우도서출판.  
박신화(2009). 「박신화 교수의 합창에 관한 질문과 응답」. 서울: 중앙아트.  
서준수(1976). 「새로운 음악」. 서울: 일진출판사.  
유덕희(1983). 「아동발달과 음악교육」. 서울: 개문사.  
이동훈(1997). 「합창 지도법」. 서울: 동진출판사.

### 2. 참고논문

- 김미경(2005).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 지도법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 대학원 碩士學位論文.  
김미경(1985). “합창 교육의 실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碩士學位論文.  
박은정(1998).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위한 지도방안”.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碩士學位論文.  
백금영(2000). “합창 지도에 있어서 발음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碩士學位論文.  
신성혜(2003). “어린이 합창곡의 기준과 리히설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碩士學位論文.  
한승환(2005). “초등 합창교육 활동 실태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활성화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碩士學位論文.

### 3. 번역 도서

Haasemann, F. and W. Ehmann(1994). 「합창발성의 실제」. 김도수(역) 서울: 미완성출판사.

Fuck, Victor(1990). 「발성기법」. 박형하 (역) 서울: 삼호출판사.

### 4. 전자문헌

김희철.“어린이 합창 지도법”, 2010년 4월 7일.

< <http://www.cafe.daum.net/agapemusic>, 2009년 10월 3일 >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condition of children choirs  
and proposals for improvements**

Kim, Heeja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Lee, Chunki

Teaching choral music to children is a marvelous process of inspiring them with full vitality. Children's experiences as choir members help them to feel a strong sense of community through harmonizing with other children with different voice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evise more desirable and effective techniques to teach children choirs, to find improvements based on a survey of conductors in Jeju private children's choirs, and to gather their opinions and attitudes in this field.

The subjects for this survey are nine children choir members in Jeju, and through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Jeju private children choirs my conclusions are listed like this:

1. In terms of conductors, they are so experienced that they are gaining amazing achievements in an attempt to reach the pinnacle of musical perfection.
2. One problem they have is that it is difficult to draw members. Generally,

children of grade 5-6 in primary school have highly-developed voices. In reality, children of that age are apt to be very busy with school and private tutoring that they move away from joining choirs. Therefore, conductors draw their members from grade 1-2 in primary school rather than holding auditions. As a result, the standard of children choirs seem to be in decline.

3. Another problem they have is that conductors have some difficulties teaching vocal exercises. Based on my observations, some leaders teach only genuine voice to grade 1-2 children in primary school. Others teach only head voice to their children because it's easy for them to choose diverse music for the choir. Also, there are choir conductors who teach both genuine voice for the low-pitched tone, and head voice for the high-pitched tone. More studies on vocal exercises for children choirs should be done.

4. To lead the choir effectively, leaders encourage their children to find joy through musical performances, rather than focus too much on vocal exercises.



5. 합창 지도법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단원에 선발에 관한 실태 >

6. 합창 단원을 선발할 때 오디션을 하십니까?

- ① 정기적으로 한다.  
 ② 부정기적으로 한다.  
 ③ 오디션을 하지 않는다.

7. 어린이 합창단 자격은 몇 학년부터 부여하십니까?

- ① 미취학 아동                              ② 초등 1-2학년  
 ③ 초등 3-4학년 ④ 초등 4-5학년

8. 합창 단원의 편성은?

- ① 20 - 25명                                      ② 35 - 30명  
 ③ 30 - 35명                                      ④ 35명 - 40명  
 ⑤ 40명 이상

9. 합창단의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10명을 기준으로)

- ① 남 1명 : 여 9명                              ② 남 2명 : 여 8명  
 ③ 남 3명 : 여 7명                              ④ 남 4명 : 여 6명  
 ⑤ 남 5명 : 여 5명

10. 파트편성의 균형은 잘 맞습니까?

- ① 소프라노 파트의 어린이가 많다.  
 ② 알토파트의 어린이가 많다.  
 ③ 소프라노와 알토파트의 균형이 잘 맞다.



<발성지도의 실태>

18. 합창 지도에서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호흡
- ② 공명
- ③ 발성
- ④ 어린이들의 변성기

19. 진성 발성을 하십니까, 두성 발성을 하십니까?

- ① 진성
- ② 두성
- ③ 진성과 두성 둘다 사용

20. 20번과 같은 발성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21. 단원들의 발성이나 호흡 방법에 대한 이해도는?

- ① 잘 따라한다.
- ② 잘 이해하지 못하여 흉성이나 가성을 쓰는 단원들이 많다.
- ③ 잘 모르겠다.

<가사 전달 지도에 관한 실태>

22. 합창 연주 시 가사 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저 그렇다.
- ③ 잘 되지 않는다.
- ④ 잘 모르겠다.

23. 합창 지도 시 가사 발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도하십니까?

- ① 리듬감을 강조하여 가사를 정확하게 발음하도록 지도한다.
- ② 가끔씩 지도한다.
- ③ 소리만 좋으면 가사의 발음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 ④ 어린이들의 능력에 맡긴다.



24. 효과적인 가사 전달을 위해서 발음 지도방법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음악적 표현지도에 관한 실태>

25. 표현 지도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지휘 동작                      ② 악구 처리  
③ 악상 처리                      ④ 음색의 통일

26. 선생님께서 악곡을 선정하고 음악적인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 ① 동료 선생님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② 합창곡 집을 찾아서 혼자 선곡하다.  
③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다.  
④ 다른 합창단의 연주를 보거나 듣고 선곡한다.

27. 합창연주 시 곡의 표현을 위한 필요 사항을 미리 반주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아니다.                      ④ 반주자에게 완전히 일임한다.

28. 합창연주 시 악구(Phrase)의 표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지도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아니다.                      ④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29. 어린이들에게 곡의 내용이나 분위기에 대한 이해를 시키십니까?

- ① 이해시킨다.                      ② 이해시키지 않는다.  
③ 단원들의 능력에 맡긴다.                      ④ 별로 중요하지 않다.

30. 어린이들이 음악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① 셈여림을 잘 표현한다.
- ② 박자를 잘 맞춘다.
- ③ 스타카토에 대한 표현.
- ④ 리듬 감각이 뛰어난 편이다.

31. 곡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방법으로 연주 하십니까?

- ① 악보에 표시 되어있는 그대로만 연주한다.
- ② 연주 효과를 위해 악상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연주한다.
- ③ 다른 합창단의 음악적 표현방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연주한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협조해 주신 내용을 통해 제주지역 어린이 합창 지도에 발전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 설문지 (학생용)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제주도내 어린이 합창단의 실태조사와 효과적인 지도방법 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답한 내용은 연구만을 위해 사용되며 연구 이외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합창단원이 응답하실 마지막 문항까지 하도록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설문지를 작성하는 어린이는?

남 (     )

여 (     )

2. 합창단에 입단한 계기는?

① 자발적으로

② 부모님의 권유로

3. 합창단에 입단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① 1년 이내

② 1년 이상 2년 이내

③ 2년 이상 3년 이내

④ 3년 이상

4. 화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안다.

② 모른다.

5. 청음 연습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6. 변성기를 알고 있습니까?

① 안다.

② 모른다.

